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80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6,30-34)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6,30-34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앞의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얕은 만남으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면, 약간만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더욱 잘 대해 주었을 텐데 하는 반성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쉽게 상대에 대한 판단을 해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도 듭니다.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그들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 줄 수 있고 아픔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돌보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 함께 걸어 주는 동행이 없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양들처럼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위로가 담긴 따스한 가르침이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 헤아려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금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가엾은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주위 사람들과 내 가족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에게 목자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돌보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양들에게 말입니다

(수원교구 7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토빗기

저자

미상.

집필 연대

기원전 200-180년경.

집필 동기

교훈 문학의 하나로, 그리스 제국의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체험하는 갈등과 의문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 악과 고통은 존재하는가? 왜 하느님은 의인의 고통에 무관심 하신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고통은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험이라는 것과, 하느님은 결국 의인에게 상을 내리시고 인간 삶 안에 현존하시는 분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배경은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입니다. 토빗은 유배 생활 중에서도 하느님께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정직한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사고로 맹인이 됩니다.

3장 1-6절은 고통 속에 있는 의인 토빗의 기도를, 한편으로 3장 11-15절에서는 신방을 치르기도 전에 악한 귀신의 장난으로 남편들을 잃은 사라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사람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시고 라파엘 천사를 보내시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4장은 토빗이 아들 토비아에게 주는 유연적 훈계로서 이 책의 교훈적 특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라파엘 천사는 토비아를 도와 아무 탈 없이 사라와 결혼하게 하고 토빗의 눈까지 뜨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인간사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하고 정직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공자사항

- * 휴가철에도 미사전례와 성경 말씀에 꼭 귀 기울입니다.
- * 본당 초등부, 중고등부의 여름신앙학교에 기도와 관심을 갖읍시다.

요한 6,51-58

다음 달 성경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 *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건네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건네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소중한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정수 현정 수
정수 현정 수
정수 현정 수

기도하며...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가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증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구 역 반공동체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five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line of lyrics and guitar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The chords are: D, A, Bm, G, Em, B7, A7; B, A, Bm, G, Em, B7, A7; G, B, Em, A7, B, D7; G, D, Em, B7, A7; G, B, Em, A7, B.